

第34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1月14日(金) 11時33分 開式

第34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臨時會) 開會式順

1. 開 式
2. 國旗에 대한 敬禮
3. 愛國歌齊唱
4.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5. 開 會 辭
6. 閉 式

(司會 議事係長 韓相殷)

(11時33分 開式)

○議事係長 韓相殷 지금부터 제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錄音된 前奏曲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一同默念)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李斗鶴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尹斗榮 區廳長님을 비롯한 副區廳長님 각 局長님 방청석에 계신 區廳의 간부님과 직원 여러분! 희망찬 '94년 갑술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우리 종로구의회가 개원하게 된 오늘 이 임시회는 참으로 감개무량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

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잘 아다시피 이땅 위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활된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어언간 저희들은 3년이란 세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로지 배우면서 구정복지를 도모한다 하는 겸허한 자세로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했고 특히나 구청의 간부 직원들까지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반면에 우리 구정 쇄신과 구민 복지에 기여하는 괴로움도 많이 있었고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지금은 우리 나름대로 성숙된 당 해를 맞이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위하고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뒷받침을 해주시고 있는 區廳長 이하 간부직원들에게 우리 區議員 일동의 이름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또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 잘 아다시피 금년이야말로 우리 국가적이나 사회적, 지역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한 해라고 아로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잘 아다시피 복잡다단한 시대를 보내고 금년에는 선거도 없고 가장 국가적으로 국익을 향상하고 또 사회적으로 질서를 확립해서 문민시대 개혁의 발자취에 온 국민이 동참해야 된다는 시대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區도

또 우리의 區廳長은 영전해 가셨고 가장 22개 區 행정기관에서 우수하고 존경받는 尹斗榮 區廳長을 맞이한 우리 종로는 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도 600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거룩한 해인 동시에 또 한국의 해로써 즉 말씀드려서 관광 한국의 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도 600년이나 관광 한국을 맞이하는 이때 가장 중심지인 종로가 그 으뜸가는 지역이고 우리는 더욱 더 외국 손님들도 맞이하고 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 더욱 내실있고 실질적인 우리 조상의 얼을 아로새기고 우리 국가의 위신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을 간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區議員만 하더라도 4년이라는 임기가 불과 앞으로 1여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까지 그야말로 24시간 우리의 성스러운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오로지 모든 사심을 초월해서 구정 복지를 위하여 구민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우리가 돌이켜 볼때 참으로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 반면에 뚜렷한 자랑스러운 그러한 깃발을 날릴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즉 재정자립도도 이루지 못한 우리 종로구에서 사실로 그 자립도에 이를 수 있는 일부도 조성하지 못했고, 또 우리 종로구청만 하더라도 정치일번지요 문화·예술의 일번지라고 하지만 區廳다운 區廳을 이 위치는 좋은데 하나 신축의 기틀도 이루지 못했고 서울시 관내 22개 區廳中에서 가장 으뜸가는 우리 종로구가 시민 복지센타인 구민회관 자리조차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있다고 할때 참으로 통탄하고 금년 1년만이라도 구민에게 뭔가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4년 동안의 중지부를 금년이야말로 참담게 여러분들이 사실로 그 지역에서 구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區議員으로서 손상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종로구 전체의 발전과 구민 복지가 그야말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종로구의회 또 종로구 의원으로서의 위상이 참담게 정립될 수 있

도록 힘과 마음과 몸이 합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자리를 통해서 노파심으로 재삼 재삼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오로지 사사로운 감상을 초월해서 議員들 간에 서로 화합단결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정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區廳長을 비롯한 區廳의 간부, 직원과 합심 단결하여 오손도손한 가운데 오로지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에 기여하겠다 하는 일념만으로써 우리는 슬기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議會가 되고 議員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세 하에서 앞으로는 이유 불문하고 사사로운 감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區議會, 우리 區議員 또 우리 종로구 주요 간부 직원들이 되지 않기를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고 명심을 하고 힘찬 새로운 종로구 건설에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위대한 우리 종로 구민의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의 두서없는 개회사의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韓相殷 이것으로 제34회 종로구 의회 임시회 開會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時48分 閉式)